

보고서 작성 전략

최근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이혜정 저, 다산에듀)라는 책이 언론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외국의 대학생들과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을 비교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의 교육 및 평가방식이 주입식 암기 위주로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책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수용성이 아닌 창의성이며, 이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고민하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책을 읽으며 그 논지에 공감하면서도 저는 창의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공부 및 평가방법이 서울대 내에서도 그리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쓰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세워 독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학문적 주제와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나름의 관점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보고서 쓰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2학년 때까지 제가 수강할 강의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은 ‘긴 보고서를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보고서 쓰기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지금도 보고서가 있는 과목이 그렇지 않은 과목보다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부담감은 이제 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에게 더욱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 쓰기에 부담을 느끼는(혹은 느낄) 새내기를 비롯한 여러 학생 분들과 어떻게 보고서를 잘 쓸 수 있을까를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1) 독창적으로 쓰자, 2) 논리적으로 쓰자, 3) 쉽게 쓰자 입니다.

첫째, 독창적으로 써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란 정해진 문제에 대해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의 공부는 문제와 답을 스스로 설정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공부목표를 잘 반영하

• • •
김 준 태
서울대 정치학과 학부생

고 있는 공부/평가방법이 보고서 쓰기입니다. 보고서는 정해진 문제에 정해진 답을 썼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주제를 설정했으며 또 그 주제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느냐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학설이나 의견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좋은 보고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창적인 것, 나만의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게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과 경험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학작품, 철학문헌, 사회문제에 대해 글을 쓰며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옵니다.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내 자신의 삶의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독창적인 문제의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 수업내용을 다른 수업내용-그것이 전공이든 교양이든-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업내용을 자신이 읽었던 여러 책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그 외의 다른 지식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섞어내는 과정은 좋은 보고서쓰기를 위한 고민이자 동시에 ‘죽어있는 지식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둘째, 논리적으로 써야 합니다. 글은 자신의 주제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논리적 ‘사슬’입니다. 사슬은 깨끗하게 한 줄로 되어있고, 매 고리가 충실히 이어져 있으며, 각 고리가 굵고 튼튼해야 좋은 사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고서에도 비유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슬이 깨끗하게 한 줄이어야 한다는 것은 보고서의 전체 내용이 하나로 일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글을 쓰다보면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들을 버리자니 아까워 모두 글에 넣곤 하죠. 하지만 이는 글의 집중력을 흘뜨리고 글의 목표를 두루뭉술하게 만들 뿐입니다. 글은 처음부터 한 가지 목표만을 겨누어야 합니다. 기발하더라도 쓸모없는 생각이라면 과감히 쳐냅시다.

고리가 충실히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매 단계가 모두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A의 전제에서 C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머릿속에서 B의 단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B는 내 머릿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글을 쓸 때에는 A와 C 사이의 과정 B를 반드시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 논리의 고리 하나하나를 표현합시다. 고리 하나하나가 굵고

학습 전략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각 주장마다 구체적인 근거를 충실히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한 설득력 있는 주장은, 내가 보기에만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선거에서 지역감정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몇 년 치 통계자료를 인용해 실증적인 수치를 언급해주는 것입니다. 학교 도서관의 책들, 논문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논문들, 그리고 각종 포털사이트나 검색엔진에서 찾을 수 있는 뉴스 등에서 우리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쉽게 써야 합니다. 글을 잘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글을 멋 부리면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멋있게 써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글을 쓰면 글에 군더더기가 붙고 그 결과 글이 느끼해집니다. 글의 목적은 나의 지식과 생각을 ‘자랑’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내 의견을 ‘전달’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내용을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해내는 글이 가장 잘 쓴 글입니다. 글을 쓸 때에 이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쉬운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먼저 글의 서론, 본론, 결론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의 서론을 아주 ‘멋들어지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서론은 내가 이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에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깔끔하게 서론을 구성한 후, 본론에서 주장을 논리 및 구체적인 근거로 입증하고 결론에서 보고서를 요약한 뒤 그 의미를 짚어주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 읽기 쉬운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는 서로 호응되어야 하고, 능동형 표현이 수동형 표현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가능하면 명사형 표현과 외국어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한자어의 사용까지도 자제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세부 항목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글맛’도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문체에서 우리나라를 독특한 느낌이죠. 글맛을 기르기 위해서는 유명한 우리나라 소설작가들의 글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한국소설을 읽다보면 자신의 마음에 드는 문체를 가진 작가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칼의 노래〉를 쓴 김훈이 그런 작가였는데요, 굳이 필사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작가의 문체를 유심히 살피고 글을 쓸 때 그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며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나와 잘 맞는 작가

의 ‘검증된’ 문체와 내가 가진 글의 스타일이 어우러지면서 나만의 독특한 글맛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퇴고만이 답”입니다. 아무리 잘 쓴 보고서라도, 다음날 다시 읽어보면 반드시 수정할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쓴 보고서를 얼마나 많이 다시 읽어보고 수정했느냐가 그 보고서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처음에 글을 쓸 때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써야합니다. 하지만 글을 쓴 이후에는 오랜 시간을 두고 반복해 읽으면서 그 글을 수정해나가야 합니다. 제출기한보다 글을 조금 일찍 완성한 뒤 다시 읽어보면서 위에서 이야기된 사항들, 또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고치고 싶은 부분들을 수정해나갑시다. 글쓰기의 왕도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보고서 과제를 많이 만나실 겁니다. 이때 보고서를 단지 ‘귀찮은 과제’로 여기기보다, 이를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